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이전은 윈윈”

강기정 시장, 시의회 시정연설 문제 해결 개입 의지 표명 통합돌봄2 등 시정 계획 발표도

강기정 광주시장은 29일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은 광주와 전남, 광주와 무안이 함께 사는 윈윈(win-win) 사업”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시정연설에서 “지난해 군 공항 이전은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전남과의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추진 합의까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다”며 “올해는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 사·도민들은 8분의 시간이 더 소요됨에도 2조원의 예산을 들여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사업에 무안공항역을 경유하는 등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감내했다”며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공항 통합 이전은 당위성이 분명하며 무안이 피해를 보고 광주만 이익을 보는 사업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결국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는 광주시민의 도움이 없다면 기대하기 어렵다”며 “4·10 총선이 끝난 같은달 24일(예정) 소송 피해 대책 마련 토론회를 열고 무안군민과 대화하는 자리도 만들겠다. 무안군민의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의 시정연설은 군·민간공항 무안 이전을 위해 전남도의 조정·중재 역할에 기댔던 광주시가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강 시장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올해 주요 시정 방침도 드러냈다.

강 시장은 “2023년이 광주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미래 변화의 밑그림을 완성하는 한 해였다면 올해는 그 밑그림에 다채로운 색을

본격적으로 입히겠다”며 “더 살기 좋은 광주, 더 즐기 좋은 광주, 더 기쁘게 좋은 광주를 활짝 열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강 시장이 밝힌 올해 대표 사업은 올해 ‘더 살기 좋은 광주’를 위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즌 2,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도심 상층 정제 구간 해소, 인공지능 핵심 기반 시설 구축 완성, 인공지능 1단계와 연계한 모빌리티·에너지·헬스케어 등 지역 특화산업의 실증 강화 등이다.

강 시장은 또 ‘더 즐기 좋은 광주’를 목표로 복합쇼핑몰, 영산강 Y벨트, 4계절 대표축제, 365일 스포츠 등을 제안하고, 옛 조각장 부지 내 대표 도서관·복합문화 공간 조성, 신양파크 부지 내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유치 등을 실현 과제로 제시했다.

강 시장은 “광주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기회 창출은 변화와 혁신에서 나온다. 뻔한 것, 예측가능한 것을 넘어 광주라는 삶의 터전을 더 풍요롭게 채우겠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전남 에너지 신산업 국비 1131억 ‘역대급’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조성...분산에너지·그린수소 등 육성

전남도가 올해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생산비 용량을 기반으로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본격 나선다. 250억원을 투입해 에너지 신산업 글로벌 혁신 특구에 미래형 송전기술인 직류전력망 플랫폼을 상용화하고,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30억원으로 전국 최초로 분산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는 6월로 예정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은 지난 2022년 현재 5.14GW에 달한다. 이러한 유리한 여건을 이용해 미래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전남도의 올해 전략이다. 이를 위해 2024년 113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24개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상풍력 융복합산업과 플랫폼 구축(25억원), 공공 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10억원)을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30GW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한층 속도를 내면서 수소, 에너지 신소재 등 미래 에너지 신산업도 본격 육성한다. 국내 최초 수전해 시스템 신뢰성 제고 기술 개발(27억원), 에너지 신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56억원), 친환경 부품의 재활용 재제조 전환 기술개발(4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글로벌 수준의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10억원을 배정해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수요 맞춤형 에너지 전문 인력도 키워내 지역 내에 정착하게 할 방침이다.

강기정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전남이 자랑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신산업을 육성해나가기만 지방소멸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남이 신재생 에너지의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명절 앞 농장 AI 차단 방역 강화

전남도가 전남 5개 시·군 8개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7곳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지역 방역 담당자들과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전남도는 29일 나주·영암·무안·함평·장흥·고흥·보성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지역인 7개 시·군 방역업무 책임자(과장)들과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귀성객 대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신속한 대응 방안으로 농장 간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기

를 했다. 전남도는 또 나주에만 7개 농장에서 10만 마리 이상 닭을 사육중이고 강진·무안·함평·장흥·영광 등에도 10만마리 이상 산란계 농장이 운영되면서 AI 발생 시 자칫 계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이들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농가에 침투하지 않도록 각 농장별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도와 시·군이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김지혜 기자 dok2000@kwangju.co.kr

지방정가 라운지

“전남도, 탄소중립 실행 로드맵 마련해달라”

김호진 도의원 업무보고

김호진(민주·나주 1) 전남도 의원은 지난 24일 제 377회 임시회 기간 열린 환경산림국에 대한 업무보고 과정에서 “전남도는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강력한 COP33 유치 활동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남도가 올해 발표한 도정 8대 발전 전략에는 기후위기 대응과 제 3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활동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면서 “전남의 탄소 중립 선도모델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노력과 함께 COP33 유치에

적극 나서달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전남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가능량은 당초 목표치인 40%에 훨씬 미치지 못한 29.4%에 불과해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뒤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절반을 차지하는 전남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지혜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광주 북구·광산구 임시동물보호센터 운영

유기동물 10일간 임시 보호...내년 5개 자치구로 확대

광주시에 북구와 광산구에서 임시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한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자치구 임시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시설과 인력 기준에 적합한 동물병원과 단체를 자치구에서 지정해 유기동물을 공고 기간(10일) 임시 보호한다. 보호 기간 전염성 질환 진단, 긴급 처치 등을 하고 공고 기

간이 지난 동물은 광주시 동물보호소로 옮겨서 관리하게 된다.

광주시는 유기 동물 발생이 많은 북구, 광산구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내년에 5개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에서는 13만여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해마다 3000여마리 유기·유실 동물이 발

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광주시 동물보호소 월평균 보호 동물은 적정 수준인 350마리를 초과한 528마리로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광주시는 올해 북구와 광산구 등 2개 자치구에서 임시동물보호센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2025년에는 5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임시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자치구 보호센터를 차질없이 운영하고, 유기·유실동물 분산 돌봄으로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120-중-161682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